



취업자수 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 고용률·경활률 2월 기준 역대 최고

- 서비스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재개·명절효과 등으로 증가폭 확대, 제조업은 감소폭 축소
- 청년은 고용률 하락, 쉬었음 40만명대 후반 지속 등 고용애로 상존
- 대외리스크 면밀히 점검하고, 추경·청년고용 대책 등 취약부문 보완 강화

① '26.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.8%로 전년대비 +0.1%p 상승, 15~64세 고용률은 69.2%로 전년대비 +0.3%p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4.0%로 전년대비 +0.3%p 상승했으며, 실업률은 3.4%로 +0.2%p 상승했다.

* 2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1.7 → **61.8** <경활률> 63.7 → **64.0** <실업률> 3.2 → **3.4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0.5%, +0.3%p)·40대(80.0%, +1.2%p)·50대(77.5%, +0.6%p)·60세 이상(44.8%, +0.5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청년층(43.3%, △1.0%p)은 하락했다.

○ 15세 이상 경활률·고용률은 2월 기준 역대 1위이며, 15~64세 고용률도 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3.4만명 증가하여 3개월 만에 20만명을 상회했고, '25년 연간(19.3만) 및 1월(10.8만)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2)13.6 (8)16.6 (9)31.2 (10)19.3 (11)22.5 (12)16.8 ('26.1)10.8 **(2)23.4**

○ 업종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효과 반영, 설연휴(2.16~18일) 전 성수품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전월대비 확대되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2)57.5 ('23)38.5 ('24)23.9 ('25)49.2 ('26.1)25.6 **(2)37.4**

- 보건·복지(18.5→28.8만)는 1월 한파 등에 따라 일부 지연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 재개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고, 운수창고(7.1→8.1만) 및 예술여가(4.5→7.0만) 등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- 다만, 지난해까지 장기간 증가세를 보였던 **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**(△9.8→△10.5만)은 **조정 흐름**이 지속되었다.
- **제조업**(△2.3→△1.6만명)은 **양호한 수출실적** 및 **기업심리 회복**세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 다만, **건설업**(△2.0→△4.0만명)은 **설연휴 전 조업** 감소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- 지위별로는 **상용직**(19.2→15.8만명)·**임시직**(△9.7→0.8만명)·**일용직**(2.6→3.9만명) 모두 증가했다.

③ **청년 고용률이 하락**세를 지속했으며, **쉬었음 인구는** 전년비 감소하였으나 40만명 후반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2)50.4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
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2) 6.1 (9)△3.4 (10)△0.9 (11)0.7 (12) 0.0 ('26.1) 3.5 (2)△2.0

④ **3월 이후**로는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만큼,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년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**중동 상황**에 따른 충격이 민생과 경제·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, 경제회복 및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**산업·계층별 고용상황**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**청년고용 대책**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는 등 **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**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- **주력산업 경쟁력 강화, 미래 성장동력 지원**(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)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**고용 창출력 개선**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준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1. '26.2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**61.8%**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**64.0%**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**3.4%**, 취업자수 **+23.4만명** 증가

- 15세 이상 고용률 61.8%로 +0.1%p 상승(역대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69.2%로 +0.3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2/4)63.5 (3/4)63.5 (4/4)62.7 [(12)61.5] ('26.1)61.0 **(2)61.8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2/4)70.2 (3/4)70.2 (4/4)70.0 [(12)69.6] ('26.1)69.2 **(2)69.2**

- 경제활동참가율 64.0%로 +0.3%p 상승(역대 1위, '99.6월~)

* 경합률(15세+, %): ('25.2/4)65.4 (3/4)64.9 (4/4)64.6 [(12)64.1] ('26.1)63.6 **(2)64.0**

- 실업률은 3.4%로 +0.2%p 상승(²월 기준역대 최저 4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2/4)2.8 (3/4)2.2 (4/4)2.9 [(12)4.1] ('26.1)4.1 **(2)3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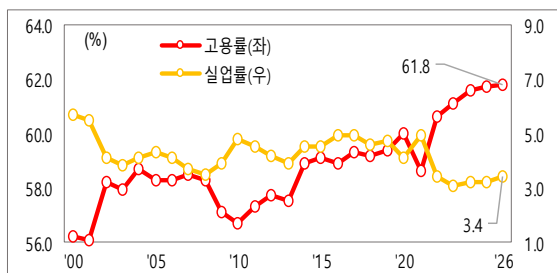
-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23.4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20.7 (3/4)21.6 (4/4)19.5 [(12)16.8] ('26.1)10.8 **(2)23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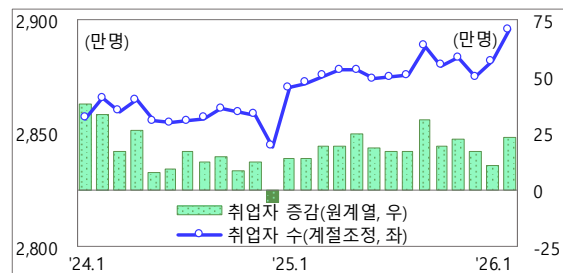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+14.1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5.2/4) 4.2 (3/4) 2.8 (4/4)△0.2 [(12)△8.4] ('26.1)6.9 **(2)14.1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2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대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, 제조업 감소폭 축소, 건설업 감소폭 확대

- (서비스)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효과 반영, 최근 내수 개선 흐름 속 명절특수(설연휴 2.16~18일) 등으로 증가폭 확대(+25.6 → +37.4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55.0 (3/4)51.1 (4/4)46.7 [(12)40.3] ('26.1)25.6 **(2)37.4**

* 공공복지 외 서비스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32.8 (3/4)22.1 (4/4)20.9 [(12)18.7] ('26.1)11.2 **(2)11.6**

- 보건복지(18.5→28.8만)는 1월 중하순 한파 등으로 직접일자리 재개가 지연되었으나, 2월 이후 재개효과가 본격 반영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2/4)22.2 (3/4)29.0 (4/4)26.0 [(12)22.0] ('26.1)18.5 **(2)28.8**

* 사업 재개 지연으로 합격후 대기자 등이 1월 조사주간(1.11~17일)에 취업자에 미포함

- 운수창고(7.1→8.1만) · 예술여가(4.5→7.0만) · 도소매(2.3→2.2만) 등은 내수 개선, 설연휴 전 성수품 구매 · 여가소비 확대 등으로 증가 지속

*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1.1 (3/4) 1.4 (4/4) 4.2 [(12) 7.2] ('26.1) 7.1 **(2) 8.1**
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7 (3/4) 4.1 (4/4) 6.2 [(12) 5.5] ('26.1) 4.5 **(2) 7.0**
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0.8 (3/4) 1.3 (4/4) 3.4 [(12) 4.4] ('26.1) 2.3 **(2) 2.2**
 * CSI(장기평균=100): ('25.2/4) 101.4 (3/4) 110.8 (4/4) 110.6 [(12) 109.9] ('26.1) 110.8 **(2) 112.1**

- 전문과학(△9.8→△10.5만) · 정보통신(△2.1→△4.2만)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장기간 증가 후 조정 흐름

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11.1 (3/4) 5.0 (4/4) △1.9 [(12) △5.6] ('26.1) △9.8 **(2) △10.5**
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4.7 (3/4) △0.4 (4/4) 0.9 [(12) 0.7] ('26.1) △2.1 **(2) △4.2**

- **(제조)** 반도체·자동차 등 양호한 수출실적, 내수 개선, 기업 심리 회복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폭 축소(△2.3→△1.6만명)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△9.1 (3/4) △6.7 (4/4) △5.2 [(12) △6.3] ('26.1) △2.3 **(2) △1.6**
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 : ('24) 8.1 ('25) 5.8 (9) △6.1 (10) 13.9 (11) 12.8 (12) 8.6 ('26.1) 13.8 **(2) 49.3**
 * 제조업 BSI(장기평균=100): ('25.1) 89.3 (10) 92.6 (11) 93.0 (12) 94.7 ('26.1) 97.5 (2) 97.1

- **(건설)** 설연휴 직전 조업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(△2.0→△4.0만명)

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△11.8 (3/4) △10.2 (4/4) △10.6 [(12) △6.3] ('26.1) △2.0 **(2) △4.0**
 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5.1/4) △7.2 (2/4) △2.6 (3/4) △0.8 (4/4) △3.8 (12) 5.6 ('26.1) △11.3

- **(농림)** '25년 작황부진 여파 지속되며 감소 지속(△10.7→△9.0만명)

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△13.7 (3/4) △13.7 (4/4) △12.4 [(12) △11.7] ('26.1) △10.7 **(2) △9.0**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8.6%(보합), 청년층 제외 고용률 상승**

- **(지위)** 상용직 증가세 지속(+15.8만명) ·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직은 증가 전환(+0.8만), 일용직 증가폭 확대(+3.9만)

* 상용직 비중(2월, %): ('00) 30.8 ('05) 35.2 ('10) 42.8 ('15) 49.1 ('20) 54.4 ('25) 58.6 **(26) 58.6**
 임금근로자 증감(1월→2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 19.2→**15.8** <임시> △9.7→**0.8** <일용> 2.6→**3.9**

- 비임금근로자(△1.3→2.9만명)는 고용원有(5.6→6.0만명) · 無(△1.1→1.0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5.8→△4.1만명)는 감소폭 축소

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1월→2월, 만명): <고용有> 5.6→**6.0** <고용無> △1.1→**1.0** <무급> △5.8→**△4.1**

○ (연령)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, 청년층은 하락

(2월 기준)	전체	청년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인구(전년비, 만명)	+24.8	△15.9	+8.5	△11.5	△6.0	+49.7
취업자수(전년비, 만명)	+23.4	△14.6	+8.6	0.0	+0.6	+28.7
고용률(% , %p)	61.8 (+0.1)	43.3 (△1.0)	80.5 (+0.3)	80.0 (+1.2)	77.5 (+0.6)	44.8 (+0.5)

- 청년층 고용률(43.3%, △1.0%p) 하락, 실업률(7.7%, +0.7%p) 상승

(%, %p)		'25년	1/4	2/4	3/4	4/4	'26.1월	2월
고용률	청년	45.0 (△1.1)	44.5 (△1.5)	45.7 (△0.9)	45.3 (△1.1)	44.4 (△0.9)	43.6 (△1.2)	43.3 (△1.0)
	20初	43.6 (△1.5)	42.7 (△2.1)	44.5 (△1.5)	44.8 (△0.8)	42.6 (△1.3)	41.3 (△2.0)	40.3 (△2.0)
	20後	71.8 (△0.7)	71.2 (△1.4)	72.5 (△0.2)	71.8 (△0.7)	71.5 (△0.7)	69.9 (△1.4)	70.4 (△0.5)
실업률	청년	6.1 (+0.2)	6.8 (+0.4)	6.7 (+0.1)	5.1 (+0.2)	5.7 (+0.1)	6.8 (+0.8)	7.7 (+0.7)
	20初	6.6 (+0.3)	8.1 (+0.7)	7.5 (+0.3)	5.3 (+0.7)	5.4 (△0.4)	6.5 (+0.3)	8.8 (0.0)
	20後	5.9 (+0.3)	6.3 (+0.6)	6.4 (+0.2)	5.1 (+0.1)	5.8 (+0.2)	6.7 (+0.8)	7.1 (+0.8)

- 청년층 쉬었음(48.5만명, △2.0만명)은 전년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2)50.4 (7)43.6 (8)44.6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2월 14.8%, 116.9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2%p, △3.8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5.1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2월 기준, %)

(2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27.3 (15.1)	146.8 (16.6)	131.4 (15.2)	124.1 (14.7)	113.4 (13.7)	120.8 (15.0)	116.9 (14.8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30.7 (3.6)	41.6 (4.7)	29.5 (3.4)	29.1 (3.4)	26.4 (3.2)	26.9 (3.3)	28.6 (3.6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9.7 (5.9)	60.3 (6.8)	56.7 (6.5)	45.3 (5.4)	42.7 (5.2)	43.4 (5.4)	39.8 (5.1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6.9 (5.6)	44.9 (5.1)	45.3 (5.2)	49.7 (5.9)	44.3 (5.4)	50.4 (6.3)	48.5 (6.2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보합 수준으로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6 (4/4)0.2 [(12)0.2] ('26.1)0.5 (2)0.3 [80.5%]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7 (4/4)1.0 [(12)0.9] ('26.1)1.2 (2)1.2 [80.0%]

-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직접일자리사업 재개가 본격 반영되며 고용률 상승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△0.2 (3/4) 0.1 (4/4) 0.3 [(12) 0.4] ('26.1) 1.0 (2) 0.6 [77.5%]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8 (3/4) 0.9 (4/4) 0.5 [(12) 0.2] ('26.1) △0.5 (2) 0.5 [44.8%]

2. 평가 및 대응

□ **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**
서비스업 증가폭 확대·제조업 감소폭 축소, 청년고용 어려움 지속

○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은 연초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1월 대비 증가폭 확대

* 1월 중하순 한파 등으로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시점 지연 → 합격후 대기자 등이 1월 조사대상주간(1.11~17일) 기준 취업자에 미포함

- 운수창고·예술여가 등 내수 연관업종은 설연휴(2.16~18일) 전 성수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

- 전문과학은 장기간 증가세(55개월 연속)에 따른 조정 등으로 감소

○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 및 기업심리 회복으로 감소폭 축소, 건설업은 설연휴 직전 조업 감소 등으로 감소폭 소폭 확대

○ 청년은 전문과학·숙박음식·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높은 수준(40만명 후반) 등 어려움 지속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2)50.4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
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2) 6.1 (9)△3.4 (10)△0.9 (11)0.7 (12) 0.0 ('26.1) 3.5 (2)△2.0

□ **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최소화**를 위한 **추경안**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, **청년고용 맞춤형 대책 마련** 등 **취약부문 고용상황 개선 노력 강화**

○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·경제회복·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

○ 산업·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청년고용 대책*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부문 보완 노력 강화

* 취업역량 강화, 일경험 제공, 회복지원 등 맞춤형 지원

○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, 미래 성장동력 지원(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) 등 경제의 고용 창출력 개선 노력도 병행